

광주·전남 수출, 자동차만 빼고 '내리막길'

무역협회, 5월 지역 수출입 동향

지역 수출 전년 대비 35.2% 감소
전남 감소율 44.3% '전국 최고치'
車 수출만 증가...가전업체도 위기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가뜰이나 얼어붙어있던 지역 산업이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남의 수출 감소율은 전년비 40%를 넘기며 지난달 전국에서 수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으로 집계됐다. 광주의 경우 자동차 산업이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하고 있지만, 가전업체 등의 부진은 심화되고 있다.

19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2023년 5월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수출은

46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2%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20년 4월 이후 3년여만에 가장 높은 감소율인데, 지난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전남 수출이 역기저효과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며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수입은 43억 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8% 감소했는데, 올해 들어 지속된 수입단가 하락세 영향도 있지만 최근 수요부진으로 지난달에는 수입 중량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광주의 경우 지난달 수출은 15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한 것에 그쳤다.

특히 자동차는 수출 호조로 미국 수출이 올해 들어 꾸준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견조한 성장세를 구축하고 광주 1위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자동차 20.8%, 자동차부품 23.8%, 타이어 등 고무제품 8.3% 등 관련 제품 수출도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남지역의 경우 수출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전남의 수출은 3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3% 감소했는데, 이는 17개 지자체 중 가장 큰 감소율이며 유일하게 40%대를 넘긴 지역이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선박, 철강판 등의 수출 감소가 크게 나타났는데, 석유제품의 경우 수출 단가 하락과 더불어 물동량까지 감소하면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6.3% 감소했다.

석유화학제품 역시 국제유가가 하락에 따른 화학제품 가격 하락 및 글로벌 제조업 경기 부진으로 합성수지, 기초유분, 기타

석유화학제품 등 수출이 모두 감소했으며 선박도 벨기에 선박 수출이 증가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라이베리아, 마셜제도 등 수출이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63.4%의 감소율을 보였다.

철강판 역시 철강재 수출 단가가 하락하며 일본, 인도, 멕시코 등 주요 수요처 수요 부진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3%나 수출이 줄어 들었다.

이처럼 전남 수출을 이끌던 상위 10대 품목 수출이 모두 감소하면서 지역 산업 및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자동차가 앞장서 견인하고 있는 광주 수출도 그동안 대표 수출 품목으로 평가받던 반도체와 냉장고 수출은 각각 14.2%, 19.8% 감소해 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업황 악화가 지속되며 재고가 누적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은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냉장고 역시 코로나 특수효과로 지난 2020년과 2021년 20~30%씩 증가했지만, 지난해부터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시현, 현장에서는 이미 가전업체 불황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의 한 수출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광주의 대형 가전공장의 수주 물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되는 시기에도 자꾸 줄어들고 있다. 에어컨의 경우 이미 지난해 겨울부터 봄까지 생산 물량이 집중됐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고 냉장고도 마찬가지로"며 "가전 생산이 줄어드는 것은 1·2·3차 협력사에서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데 최근 전반적으로 수주 물량이 줄어든 탓에 업계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삼성전자 '비스포크 제트 붓 AI' 스페셜 에디션

일러스트레이터 맥스 달튼과 협업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 '맥스 달튼'과 협업한 '비스포크 제트 붓 AI' 스페셜 에디션 제품을 공개했다.

삼성전자와 맥스 달튼은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맥스 달튼, 영화의 순간들 63 에피소드' 전시 오픈을 앞두고 스페셜 에디션을 기획했다.

이번에 선보인 비스포크 제트 붓 AI 스페셜 에디션은 상단 커버가 맥스 달튼의 대표작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과 '비스포크 라이프' 총 2종으로 구성,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상단 커버는 이번 전시의 메인 작품인 웨스 앤더슨 감독의 2014년작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오리지널 일러스트 작품을 담았다.

또 '비스포크 라이프' 상단 커버는 공간을 층층이 쌓아 도식화하는 맥스 달튼 특

유의 화풍으로 제작한 것으로 사용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주는 삼성가전제품들이 함께하는 비스포크 라이프를 그려냈다.

맥스 달튼은 "작품을 통해 누군가의 세계에 들어가 기여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삼성전자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나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간에 내 작품이 직접 들어가서 움직이는 예술작품이 된다는 것이 흥미로웠다"고 협업 소감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2주간 63아트 전시관에 이번 스페셜 에디션 제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했다. 포토존에서 제품을 체험하고 인증샷을 찍어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맥스 달튼 스페셜 에디션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곽지혜 기자

금호타이어 '폭스바겐 타오스' 신차용 타이어 공급

프리미엄 크루젠 HP71 제품 '완성차 파트너십 확장할 것'

금호타이어는 폭스바겐의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타오스'에 신차용 타이어로 크루젠 HP71(사진)을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폭스바겐 타오스는 넓은 실내공간과 주행 만족도를 강조한 프리미엄 SUV 모델이다. 현대적인 디자인과 세련된 내부공간,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용한 차량으로 특히 158마력의 1.5리터 터보차저 4기통 엔진을 탑재해 경쟁력 있는 연비를 제공하는 물론, 안정적인 핸들링과 부드러운 승차감을 구현해 낸 것이 특징이다.

이번 타오스 모델에 공급되는 금호타이어



어 크루젠 HP71은 부드러운 주행성능과 정숙성을 강화시킨 고성능 프리미엄 컴포트 SUV용 타이어로 차별화된 프리미엄 소재와 차세대 컴파운드(고무화합물)를 적용해 기존 제품 대비 마모 성능과 스노우 성능을 20% 이상 높였다.

또 와이드 그루브 설계를 통해 젖은 노면에서의 배수력을 향상시켜 조종 안정성

과 제동 성능을 높임으로써 빗길 제동력도 향상시킨 제품이다.

김인수 금호타이어 OE영업담당 상무는 "이번 폭스바겐 타오스 OE공급은 금호타이어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번 공급 기회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과 차세대 전기차용 OE 타이어 개발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기아 'The Kia EV6'와 폭스바겐의 순수 전기 SUV 모델 'ID.4 (Volkswagen ID.4)' 차량 등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 중이다. **곽지혜 기자**

광주은행, 지역 토종 가맹 소상공인 금융 지원

광주형 프랜차이즈 특례보증대출

광주은행은 광주지역에 가맹 본사를 둔 토종 가맹점주 및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는 '광주형 프랜차이즈 상생 특례보증대출'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은행이 광주신용보증재단·조선이공대학교·광주형 프랜차이즈협회와 협약을 통해 만든 '광주형 프랜차이즈 상생 특례보증대출'의 지원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 본부 주소가 광주시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이며, 광주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전액보증서 담보대출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우대금리는 △조선이공대 프랜차이즈 관련 교육 이수자 △광주은행 및 광주신용보증재단 컨설팅 신청 업체 △영업점장 인정 우대금리 등 조건에 따라 최고 0.8%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영업점 및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지난달 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광주은행을 방문해 지역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함에 따라, 광주은행은 사회적 책임

을 다하고 신뢰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595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 종합지원, 6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총 1조2250억원의 상생금융 계획을 발표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국내외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가 지역 경제를 잠식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단순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엔화, 8년 만에 최저... 외화예금·환전 '급증'

최근 들어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은행 외화예금과 환전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외화 중에서는 큰 폭으로 떨어진 일본 엔화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환테크(환율+재테크)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이 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오전 장중 100엔당 8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900원대를 보이고 있다. 원·엔 환율이 900원대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엔화는 일본 중앙은행(BOJ)의 통화완화 정책 지속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엔화는 긴축 종료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면서 원·엔 환율이 급락해 환테크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4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엔화 매도액은 301억6700만엔으로 전월보다 32%(73억2800만엔) 증가했다. 엔화 예금 잔액도 이달 들어 15일까지 1131억엔 늘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으로 약세 흐름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전남중기청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조성

비수도권 기업 초기투자 활성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초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를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는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개인투자조합(子조합)에 출자하는 모펀드로, 자(子)조합별 약정총액 기

준 최대 80%까지 출자한다.

출자를 받은 자(子)조합은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조합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므로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의 출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는 전문개인투자자 또는 창업기획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조경제혁신센

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 접수는 20일 오전 10시부터 7월 11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되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kvc.or.kr/알림마당-공시사항-출자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지역엔젤투자재간접펀드가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